



vol.
가정예배

01

리폼드 Reformed Life 라이프

●
머를 드와비니

토마스 두리틀

J. W. 알렉산더

올리버 헤이우드

존 번연

존 패이튼

존 하웨

개혁이라는 말은 역사상 가장 바르고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16,7세기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지만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6,7세기의 종교개혁은 어느 개인의 탁월한 신념이나 종교 의식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contents

- 04** 가정예배의 목적
머를 드와비니(J. H. Merle d'Aubigne, 1794-1872)
- 11**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토마스 두리틀(Thomas Doolittle, 1630-1707)
- 15** 가정이 기도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
토마스 두리틀(Thomas Doolittle, 1630-1707)
- 30** 하나님 말씀과 가족 기도
토마스 두리틀(Thomas Doolittle, 1630-1707)
- 35** 아버지와 가정예배
J. W. 알렉산더(J. W. Alexander, 1804-1859)
- 51** 부패해가는 신앙을 위한 치료책
올리버 헤이우드(Oliver Heywood, 1629-1702)
- 55** 가정예배의 본질과 보증과 역사
J. W. 알렉산더(J. W. Alexander, 1804-1859)
- 68** 가정예배의 추억
존 패이튼(John G. Paton, 1824-1907)
- 74** 이교도와 그리스도인
존 패이튼(John G. Paton, 1824-1907)
- 79** 그리스도인의 가정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
- 92** 여성이 인도하는 가정예배
존 하웨(John Howe, 1630-1705)
- 95** 가정예배 규범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1647년)
- 103** 가정예배를 위한 실제적 조언
김정열



가정예배의 목적

머를 드와비니(J. H. Merle d'Aubigne, 1794-1872)¹⁾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민 23:10)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기를 소망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십자가상에서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셨던 것처럼 말이다(눅 23:43). 이는 거짓이 아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하고자 하시면 강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리시고 멀리 떠나있는 영혼들을 돌이키신다. 이로써 하나님

1) 목사요 제네바 Ecole 신학교의 학장 겸 교회사 교수였다. 잘 알려진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and The Reformation in England』를 포함한 개혁 역사에 대한 여러 책의 저자이다.

의 주권적 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우 드문 예외들에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로 주께 돌이켜져야 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해야만 한다. 그 복된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이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가정에 속한 모두가 매일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 훈련이다. 믿음의 결단과 그 실천의 길잡이가 되어 줄 가정예배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며 그 사랑이 값어치 받고 전해진 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의 소유인 당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가정이다. 당신은 다른 형제들과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또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려 당신의 영혼을 쏟아내는 것을 사모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당신과 자녀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당신은 친구들과 수천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 대화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을 가정의 참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 언젠가 당신 아내의 유일한 남편이자 자녀의 하나뿐인 아버지가

되어주실 하나님에 대해 당신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가정 공동체를 형성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가정 공동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의 사명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과 부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인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의 운명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힘이 되는 한 서로 도와주려 애쓰지만 정작 영원한 유익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는 육체에 갇힌 이 유한한 시간동안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과 우연으로 만나 죽으면 곧 헤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금의 배우자와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가. 신앙이 당신들의 영혼을 영원의 끈으로 묶을 것이다. 가정의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매일 그 끈을 더 단단하게 끌어당겨야 한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여행자들은 그들이 가게 될 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영원한 세상에 도착하기 위해 함께 여행하고 있는 당신들은 그 곳으로 가는 항로에 대해 그리고 가는 도중의 두려움과 소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인가(빌 3:18, 20).

둘째, 자녀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과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 거해

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자녀가 잠시 누릴 세상적 부요함과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고 있다. 영원한 부요함과 행복은 경시한 채 말이다. 자녀는 당신에게 맡겨진 어린 나무이다. 당신의 가정은 그들이 자라나는 묘목원이며 당신은 그 나무를 기르는 책임을 맡았다. 그 여리고 귀한 어린 나무를 불모의 모래흙에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자 구원자 되시는 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그들이 자라도록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나무를 위해 좋은 양분을 지닌 적합한 흙을 준비해야 한다. 망망대해와 같이 어지럽고 불안한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가 온갖 죄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자녀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로 하여금 경건한 교제를 경험케 하기보다는 모든 번덕을 맞춰주며 아이들이 원하는 세속적 진로를 지원하는 것을 당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가? 결국 거만하고 반항적이며 나태하고 허영심 가득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당신의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모욕을 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열중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이는 너무도 자주 보게되는 사실이다. 자녀의 나쁜 습관과 버릇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자녀의 마음에 신앙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시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참으로 큰 죄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최우선은 자녀를 주님 안으로 온전히 가져다 놓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 안에서 부모가 경건의 모범을 보

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는 공예배는 아이들에게 막연할 수 있다. 개인적 예배 또한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기계적인 암기방식으로 신앙을 배우게 한다면 외국어나 역사 같은 또 하나의 교과서식 공부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온다. 단순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자녀가 들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가정 안에서 어떠한 예배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신앙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할 가르침도 없다. 가정예배는 자녀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시 1:3)로 자라나게 한다. 장성하여 어느 곳에 가있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 드린 기도를 기억할 것이다. 그 기도들이 자녀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경건생활이다(답전 5:4).

셋째,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삶의 중심에 가족 제단(가정예배)을 세우고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하나를 이루는 가정에서는 기쁨과 화평의 진정한 행복이 넘쳐난다. 하늘에서 누릴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시 133). 이는 경건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전해주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가정에는 무례함과 불쾌함, 짜증스러운 마음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님에 대

한 사랑과 지식이 없는 가정은 서로 간에 본성적 애정만 나누고 있는 개개인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진정한 결속의 끈이 빠져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시인들이 아무리 가정을 아름답게 묘사해낸다 하여도 현실은 전혀 다르다. 때때로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허덕이거나 성격이나 원칙이 달라서 대립한다. 가정 안에는 실제 많은 문제와 걱정이 발생한다.

가정의 경건은 이 같은 모든 악을 막아낼 수 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확신을 지니게 하시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신다. 강요가 아닌 자비로운 사랑을, 자랑이 아닌 겸손한 사랑을, 배반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시 118:15).

넷째, 시련의 때에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련의 때가 있기 마련이다. 가정 가운데 시련이 닥칠 때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준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은총과 더불어 우리가 겪는 시련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이기를 즐겨하는 가정이라면 낙심하던 영혼도 다시금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시련의 때에도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으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확인한다. 자신의 소망의 근거와 함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확실한 행복의 언약을 발견한다.

주님은 기꺼이 가정 가운데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향유가 고통 위에 부어져 매우 큰 위로가 그들을 감싸 안는다. 이윽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평안으로 소통하며 천상과도 같은 행복의 시간을 누린다(시 23:4, 시 30:3-5).

다섯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가정의 경건은 속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에서 가난한 직공에 이르기까지 그들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도 귀를 기울이게 한다. 또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양심을 따라 정의롭게 살며 분별과 예의를 갖추게 된다. 서로 재능을 나누며 공동체 가운데 많은 선행이 이뤄지는 등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기대하는 일이다. 이처럼 신앙경건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약속이다.

시편 128편 1절-4절

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²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³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토마스 두리틀(Thomas Doolittle, 1630-1707)¹⁾

첫째,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가족 공동체는 대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모든 형태의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권위를 가진 자와 그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는 자연 질서이자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다. 보통은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것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의 헌신을 작정하듯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헌신을 다짐해야만 한다.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

1) 리처드 박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읽고 어린시절 개종하였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작가였고, 설교자였고 가장 유명한 청교도 중의 하나였다. 키더민스터에서 태어났다.

나눔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단지 가족 간의 위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와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신 것은 가족들의 영혼을 돌봄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가정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본성적으로 탁월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지닌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 주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만큼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은 없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사단은 창조와 보존, 구속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단을 섬기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주권을 지니신 분이자 당신을 온전히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을 섬겨 예배해야 한다. 설령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긴다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과 진배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찌 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왜 자신의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그 행위 자체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이

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라. 그리고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긴다면 가족과 더불어 그분을 섬겨 예배하고 기도하라.

셋째, 가정의 주인이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할 계명을 주셨다. 이는 당신에게만이 아닌 당신이 연합되어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셨다(엡 5:25-33, 6:1-10, 골 3:19-25, 4:1). 백성은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신의 가정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함과 같이 가정의 주인이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말 1:6).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불경건한 가정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결코 찾을 수 없다.

넷째, 가정을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연합된 공동체에 선함과 자비를 베풀어주신다. 당신은 실제로 가족이 함께 살 보금자리와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가정에 친밀히 간섭하여 돕고 계신다. 이 큰 은혜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더러운 돼지우리라 진배없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가정들에 대해 책망하고 계신다(렐 2:31).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들을 잊지 않으신다. 매일 식탁 위에 놓은 음식들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지극한 돌봄 가운데 함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 혈벗지 않고 건강히 자라가고 있다. 이것 말고도 수천 가지 이상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정작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사람들을 도우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도 악한 일인가.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지만, 아침이 되면 당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때를 기억해보라. 어찌면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죽음까지 이르렀다가 되돌아온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과 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와 찬양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어찌 배은망덕한 철면피들의 모임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먹여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정들이 그렇게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짐승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사 1:2-3).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자 소유자, 통치자,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며 기도와 찬양을 올려야 한다.



가정이 기도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

토마스 두리틀(Thomas Doolittle, 1630-1707)¹⁾

첫째,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필요하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시 68:9).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지난 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고 도둑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집이 안전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집이 안전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루는 계속되고 반복된다. 또 다시 아침이 되었다. 자고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가족 중에서 침대 위에 죽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젯밤에 기쁘게 뛰어 놀았던 아기도 건강하다. 누구도 지난밤에 아프지 않았고 누구도 다음날 생명을 잃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1) 리처드 박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읽고 어린시절 개종하였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작가였고, 설교자였고 가장 유명한 청교도 중의 하나였다. 키더민스터에서 태어났다.

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아!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정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을 맞이했다. 그런데 침대 위에 가장인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던 가족들이 갑자기 침대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죽은 그의 목숨을 살려 주셨더라면!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통곡할 것이다.

지난밤 당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도 가족들은 불이 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모두 문밖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번질 수 있었던 불씨도 신속하게 제압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화재로부터 재빨리 대피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족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당신이 알아차렸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보전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오늘 밤 또다시 우리가 집에서 편안히 잠자리를 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무사할 수 없다. 그 은총 없이는 잠자리에 드는 누구도 무사한 다음날을 장담할 수 없다! 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총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당신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그 은총을 거부하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자들은 날마다 그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려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밤에도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1-2)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오셨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은총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루 전체 동안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 은총을 깨닫는 자들은 침대에 눕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없다. 그러나 그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날에도 내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었고 많은 은총과 선한 것들을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내가 가져다 준 은총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구나!’라는 꾸짖음과 ‘너희는 다

른 날에도 내가 안겨줄 은총의 빛들을 결코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은덕에 감사치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너희 영혼을 취하리라. 내가 날마다 너에게 많은 자비들을 베풀었으나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밤마다 너를 보호했던 나에게 기도하지도 아니하였노라.’는 책망을 받으며 인생을 마무리 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다. 그러나 심판 받을 만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둘째, 가족들이 날마다 죄를 짓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함께 죄를 지었기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세상의 이치에서도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공동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다. 가족들은 날마다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족들이 짓는 죄를 다 합하면 참으로 클 것이다. 당신의 지붕 아래에서 또는 집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은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영광스럽고 고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짓는 죄를 두고 수천 명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은 가족들이 짓는 죄들을 두고서 한 방울의 눈물로 흘리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당신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날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가족들 안에서 득실거리고 있는데 당신의 가족은 한 번도 모

여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범했던 죄를 주께 고백하지도 않았다. 그 죄를 두고서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신에게 죄 용서의 하나님이 있는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에도 여전히 해결 받지 못한 죄가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받지 않은 당신을 지옥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죄 용서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신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가?

사람은 죽은 후, 반드시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신자에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이다. 만약 당신이 신자라면 가족들이 받을 정죄와 심판을 두고서 하나님께 탄원해야함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족들 위에 놓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 침실에 들어가 잠자리에 눕고자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베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온갖 무거운 죄의 짐들을 안고 잠자리로 향하고 있는 당신의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준단 말인가? 침대가 너무 폭신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베가와 침대보다도 더 딱딱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인가? 가족들은 오늘도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죄를 추가하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죄 짓고 있는 가족들을 당신의 마음에 가까이 두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짓고 있는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치 않으신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다.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당신과 가족들은 그 필요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건강을 당신이 공급할 수 있는가? 가족들에게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필요를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가? 가족들에게 양식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필요들은 공급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 6:11)라는 말씀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기도 외에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기 원하신다. 그 은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약 1:17)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각양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얻도록 기도를 도구로 주셨다. 비록 그 선물들이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더라도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거뜬히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약 1:5)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의무들을 이행하고 가족들을 돌아보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자만함은 자신이 이미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일진대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당신의 가족이 건강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혹시 당신은 가족들이 하나님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도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언

제나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투정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모순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넷째, 가족이 날마다 일하는 현장에 있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도해 힘써야 한다. 기도와 노동은 헛된 일이 아니다. 기도와 노동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일을 계획하고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일하고 물건을 파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느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한 것은 전혀 소용없게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원문: 슬픔의 양식)을 먹음이 헛되도다.”(시 127:1-2) 여기에서 “수고의 떡”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양식이라는 뜻이다. 열심히 수고해서 마련한 음식으로 가족들을 배부르게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 것이라면 헛수고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우리를 게으르지 않도록 하며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성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도를 핑계 삼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일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지나치는 것도 잘못이다. 게으른 자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일도 성공할 수 없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와 노동은 둘 다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균형 잡힌 기도와 노동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기도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공급을 제공 받는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반대로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는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약 4:2)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와 노동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약 4:13)고 말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이득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또는 내일에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가? 일하러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도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거나 죽게 하셔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지금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우리는 ‘도시’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하고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자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계획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도시에 들어갔다면, 그 도시에 이르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펼치기도 전에 죽음이 그에게 임할 수도 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불법적으로 한 일에 대한 처벌로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 ‘도시에서’ 일 하면서 이득을 얻고자 할 것인가?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이라면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물건을 사고팔았으나 장사가 잘 되지 못했고 판 물건도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해 이득이 거의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의논할 것인가? 일 해서 이득을 얻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라. 그것은

당신에게 성공과 번영과 부를 안겨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저주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일을 계획하고 물건을 사고팔면서 열심히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기도 없이 일터로 향하거나, 가게 문을 열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섯째, 가족들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단은 또다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첫 생각들을 점령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긴급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첫 시간을 빼앗고자 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악하고 가증한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우리를 울무에 빠뜨릴 것이다. 그 교활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끊임없이 점령하는데 지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우리가 사단의 계락을 알아차린다면 사단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아침과 저녁에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많은 유혹이 우리의 일터에 찾아왔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일터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고 벌써 불신자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하
 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의 옷은 벌써 더럽혀 졌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안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양심
 은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한때 오리겐²⁾은 깊은 슬픔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그는 습관
 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빠뜨린 어느
 날 심각한 죄를 저지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오호라! 나
 는 불쌍한 피조물이라! 새벽에 동틀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익숙하게 드렸던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드러
 왔던 기도마저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마귀가 쳐 놓은 올가미에 걸
 려서 온 몸이 뒤엉켜 있는 것과 같이 침상 위를 뒹굴면서 뒤엉켜
 있을 뿐이다!”

여섯째, 가족들에게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한 사람이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내 소유를 가져가고, 또 다른 사
 람이 집 물건들을 들어내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도 나
 자신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
 에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가정을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소
 유를 마음껏 도둑질하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가정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빼앗기고 있는데도 그것
 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의 가족들은 이

2) 오리겐(185-254)은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성경학자이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수많은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보고도 막아서지 않고 침묵하고만 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일 없는듯이 조용히 있을 수가 있는가?

잠시 일로 외국에 나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법도 없다. 누구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한다. 오늘 내가 살아서 집 문을 나서지만 같은 날에 죽은 송장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저녁에 집에 돌아온 후에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아침과 저녁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가족들이 집 안팎에서 불길한 사고를 당할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 시인 아나크레온³⁾은 건포도를 먹다가 실수로 낱알이 목에 걸려서 죽었고, 한니발 장군을 떨게 했던 로마 장군 파비우스⁴⁾(B.C. 275~203)도 우유를 마시다가 엉킨 새끼 염소 털이 목에 걸려 끝내 죽고 말았다.

날마다 짓는 죄들이 날마다 나를 처벌해 달라고 크게 울부짖고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날마다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3) 아나크레온(c.587-c.485 BC)은 고대 그리스 서정 시인으로서 이곳저곳의 공정에 드나들면서 술과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지으며 살았다.

4)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275-203 BC)는 로마 공화정시대에 정치가이자 장군으로서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두려워한 명장이었다.

서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은총이 우리를 떠 받치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은총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안전할 수 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반석 위에 지지대를 박고, 단단한 벽돌로 벽을 쌓으며, 못과 철을 녹여 튼튼한 대문을 만들어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

일곱째, 이교도들이 조롱하고 정죄하기에 가정은 기도해야 한다.

이방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으로부터 은혜의 방편과 가르침과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 이교도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점은 이교도들이 가정에서 태만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글을 써서 가정에서 태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기도 한다. 정직하게 말해서 가정에 있어서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낫다. 이교도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며 주어진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가정에서 충실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이교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가? 이교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께 제사를 바쳤으니 이제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야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때 우리는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야겠구나.’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전에 조금 더 놀자. 조금만 더 게임을 즐기고 잠자리에 들자.’라고 서슴없이 말하지는 않는가? 이와 같은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돼지우리에 비유한 것을 보아도 사람의 탈을 쓴 돼지와 다를 바 없다! 산에 사는 멧돼지는 쥐엄 열매를 매우 좋아하며 그 열매를 획득하는 즉시 게걸스럽게 먹고 새끼들에게 먹인다. 그러나 멧돼지들은 쥐엄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먼저 가서 손을 뻗치거나, 나무에 오르거나, 나무를 흔들어서 그 열매를 획득하지 않는다. 참으로 태만하고 게으른 멧돼지이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과 가족 기도

머를 드와비니(J. H. Merle d'Aubigne, 1794-1872)¹⁾

가장은 가족 모두에게 성경을 읽히고 자녀에게 구원의 내용과 관련 교리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장의 이러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명하셨다(출 12:26-27).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성례전, 곧 세례와 성찬의 본질과 유익, 목적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하셨다(신 6:6-7, 11:18-19).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기준으로 믿고 있다면 자녀를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당연하다(엡 6:4, 창 18:19).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반드시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야 한다.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음의 내용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함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리처드 박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읽고 어린시절 개종하였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작가였고, 설교자였고 가장 유명한 청교도 중의 하나였다. 키더민스터에서 태어났다.

첫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복되고 영원한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고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영혼에 대한 가르침과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치유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 또한 영적 원수들에 대항할 무기를 전해주시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의 마음 받을 준비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과연 기도 없이도 말씀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위엄에 대해 가족들이 민감한 태도로 임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 언약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당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신자의 책임과 특권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가족 모두를 참된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도 확인한다.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한다. 성경 가운데 자신의 본분을 발견하게 되면 전심으로 순종하여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고, 주신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당신이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기에 앞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오묘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숙고하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진리인 신인(God-man)에 대한 내용, 왕과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과 생애, 기적, 광야의 시험, 고난, 죽음, 승리, 부활, 승천, 중보, 재림과 심판, 삼위일체 및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니게 된 귀하고 영화로운 수많은 특권, 즉 하나님과의 화목과 칭의, 성화, 양자됨에 관한 내용, 주신 수많은 은혜와 행해야 할 의무, 천국과 지옥의 영원성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가족이 함께 매일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고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셋째, 모든 가족이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가족이 구원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것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분명 그들은 타락하여 저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어 회심치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국과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본질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가족의 평안이 말씀

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넷째, 가족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어두운 지성과 무능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 더욱 면밀히 살펴보라.

이를 알고도 아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가.

다섯째, 하나님에 대한 주요 진리를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가장 특별한 방법임을 숙고하라. 더불어 가족에게 이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가장의 복된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담겨있다(시 119:18). 타락한 인간이 회복케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과 화평을 이루신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과 눈이 어둠에 가려 성경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성을 밝히실 수 있다. 그 놀라운 말씀

의 지식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다.

가장으로서 당신은 가족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 그 영향 아래 놓이기를 원하고 있는가. 영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그들의 지성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가족과 더불어 그분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당신이 가족과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말씀과 이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은밀하고 강한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신명기 6장 4절-9절

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⁵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⁶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⁷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⁸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⁹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버지와 가정예배

J.W. 알렉산더 (J.W. Alexander, 1804-1859) ¹⁾

아버지의 고유한 자리

가정에서 아버지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족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이끌 때에 그의 경건함이 드러난다는 점이며 또한 그것이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이다. 만일 가장인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정은 전체가 싸늘하고 냉랭할 것이다. 아버지가 조금 미숙할지라도 가정예배를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야지만 그에게 경건함이 증진되고 이에 그 가정도 행복해진다.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이끌면서 가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도 않고 안절

1)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의 장남,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수,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교에서 모두 가르침.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열정을 기울인 것은 목회였다. 그는 1859년에 죽을 때까지 버지니아와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했다.

부절 못하면서 감정이 동요되고 있다면, 가정의 권위 아래 있는 가족들은 실로 참담하게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가정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있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한들 소용이 없다.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겠는가? 기도조차도 가정의 잘못된 영향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가장이 가진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성숙한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 집을 상상해 보라. 그 집은 달라도 한참 다를 것이다. 아버지가 애정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로 가족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있는 집은 실로 견고할 수밖에 없다. 그가 그리스도께 헌신되었기에 그가 이끄는 가정예배는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세상으로 이탈된 가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정에 가정예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가정예배 인도라는 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을 잘 발휘만 한다면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기본적 역할이 수행되는 만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한다. 그 은총의 비결은 가족들이 매일 한 자리에 모인 가정예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아버지의 경건함에 있다.

가정예배가 가족전체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특별히 아버지(가장)를 위한 것임은 과장이 아니다. 가장은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특권을 가진다. 그

특권을 가진 가장의 제일 큰 기쁨은 말씀을 전달받은 가족들이 죄를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이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교향악단원들을 웃으면서 바라보는 지휘자와 같다. 또한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점점 더 경건함이 더해진다.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가장의 경건함이 현저하게 자라는 것은 놀랄만하다. 매일 아침저녁 반복되는 가정예배가 아버지에게 관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가정예배는 날마다 새롭다. 왜냐하면 훈련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 아버지의 경건함은 더해져 더 고귀하고 고유하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을 애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경건함은 필수적이다. 아버지는 가족의 경건을 책임지는 가장이지만, 그 덕목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낮아진 그 마음은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임을 알려준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경건함의 능력인가! 가정예배가 가장의 경건을 되살리고 유지시키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향상될 가족들의 경건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영적인 필요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가족들은 세속적인 유혹에 취약하고 영적으로 바닥의 상태를 면하지 못

하고 있음을 거침없이 드러낼 것이다. 또한 언제나 차갑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성급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갖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예배 없이 그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다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엄숙하고 진지함이 가정 중심에 스며들어 있다. 그 가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흘러넘치는 애정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의 경건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증진되고 그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넘쳐날 것이다.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며 매 순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낮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아주 태만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더욱 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한다. 그는 단순히 나이든 사람이기 이전에 가장이다. 즉 그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이 있다.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가정예배를 이

끌어야 하는 아버지의 책무가 닳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위엄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말썽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경건하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할 것이다. 하루 속히 그가 영적 가장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바른 기능을 할 때 그의 아들이 비로소 말썽으로 양육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아들이 앞으로 맞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깊게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자리에 돌아온 까닭이다. 이와 같이 가정예배의 회복은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고정해서 성경으로부터 충실하게 가정을 세우려는 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점점 더 많아진다면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가정예배에서 가족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된다. 가족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도 한다. 무너졌던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며, 남편이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들은 가정예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가정예배인가! 세월이 흐른 뒤 가정예배를 드렸던 가족들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가정예배를 회상하며 돌아볼 것이다. 과거에 구름처럼 희미하고 불확실했던 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가정예배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과거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나갔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 가족들의 마음은 또다시 하나가 된다. 이 얼마나 막강한 가정예배의 힘인가! 가정예배는 가정을 변화시켰고, 가족들의 인격을 바꾸어 놓았으며, 가족들을 올바르게 성장시켰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가정예배에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주일예배와 개인 경건과 같은 은혜의 방편을 누릴 수 없었던 시절에 저는 가정에서 매일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주 목격했던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내게 당부하셨던 말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예배

가장이 불경건한 사람일 경우

불신자이거나 신앙이 없는 가장에게 가정예배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에게 가정예배를 맡기는 것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가장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사람이 없기를 애정 어리게 바란다. 이 경우에는 가정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가정을 대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과부와 고아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경우

과부의 가정, 부모를 여윈 자녀의 가정, 친척이 고아들을 맡고 있는 가정은 실제로 가장이나 아버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과부나 자녀들 중 연장자나, 고아들을 맡은 친척 중 한 사람이 가정예배를 이끄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끄는 가정예배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위의 경우들과 같이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해서 가정예배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차선의 길을 모색해서라도 가족을 위한 가정예배는 지속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고유한 사명

가장인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이것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누구도 그 권한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가정의 고유한 사명과 그가 가진 특권은 단순히 그가 나이가 많고 지식과 물질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장은 집의 주인이다. 그가 행실이 나쁘고 성품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정의 존재와 위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고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예배드릴 때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온 마음으로 가정을 품으면서 언제 가족들이 한 자리로 모여야 할지를 알고 그 모임과 시간을 정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중요하고도 고유한 사명이다. 그 사명을 아버지는 헌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의 기능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제사장적 기능은 여전히 가정의 자리에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오늘날 가장인 아버지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중재자적 기능을 하고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헌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를 올려 드린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같이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 제사장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의 머리로서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대신해서 희생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 직무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해서 그가 형식적인 틀에 갇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땅을 개간하듯이 오랜 끈기와 인내로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이끄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엄숙하게 그 모임을 이끌어야 한다. 물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가끔은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치 ‘봉인한 통 안에서 숙성되고 있는 포도주’와 같이(욥 32:19) 그가 인내할 때 가족들을 향한 애정도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된다. 잘 숙성된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유익하듯 가정의 인내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들의 건강은 더 증진될 것이다. 가정의 인격이 깊은 산골의 옛 시골농부처럼 단조롭지만 인내와 함께 엄숙하고 고귀하게 흘러나온다면 가족들은 그 건강함으로 기쁨이 샘솟을 것이다.

아버지가 가난하고 못 배운 가장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딸들 앞에서 하얗게 센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왕보다 기도로 고개를 숙인 아버지가 더 고귀하고 명예롭다. 기도하는 가장은 그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이 쓰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걷는 길은 ‘의의 길’이 될 것이다(잠 16:31). 기도로 거룩하게 가정예배를 주재하고 있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겸손한 성품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막강한 힘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고유한 책임

어느 시대에도 가족을 보살피는 책임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고유한 책임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녀들이 외적으로는 가정예배에 참석하고 부모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자녀가 가정의 고유한 보살핌에 벗어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사람은 그 한 자녀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이기 때문이다. 성숙하지 못한 아내여! 남편이 아닌 누구에게 영적인 보살핌을 기대하는가? 남편에게 영적인 보살핌을 받지 않으려는 아내여! 도리어 누구를 보살피고자 하는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가정이다! 자녀들이여! 어찌 성인이 되고 출가할 때까지 아버지의 고유한 보살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시기가 있고, 사회에 진출을 꿈꾸며 자신을 훈련하는 시기가 있으며, 결혼 후 출가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시기가 있다면, 자녀들은 출가할 때까지 그 시기가 길든지 짧든지 간에 그 기간만큼은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정에서 목회자로 있어야 할 아버지는 ‘가족들을 보살피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외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들을 진지하게 되새김질 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자라면, 자신의 책임

과 의무를 정확하게 자각하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부모의 심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아버지라면 누구나 자신이 육신적인 아버지일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아차린 가정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아버지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요한 본질적 사명을 알려주고 싶다. 아버지의 본질적 사명은 그가 신앙을 전달하는 가정의 선생님이요, 인도자요, 본보기가 된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순간, 아버지의 입은 그가 조용하고 부끄러운 가장인 것에 상관없이 본래 목적대로 열린 것이다.

아버지의 고유한 권위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이는 것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가정의 교사요 목자나 다름없다. 그가 학력이 낮고 책과는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가 모세와 같이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출 4:10) 평범한 사람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의 생수를 날마다 가족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혀가 둔한 모세가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들에게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물을 공급한 것과 같다(출 2:19). 따라서 아버지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순간 더 이상 “무식의 자리”(고전 14:16)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듣는 가장들은 격려를 받고 부족할지라도 그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산모에게 갓난아기를 따뜻하게 품고 애정의 눈빛으로 젖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산모에게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라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장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는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벧전 2:2)는 말씀을 가족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주인이지만 가정에서 낮은 자로서 가족들을 섬긴다. 그가 자신을 낮게 낮출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돌봄 아래 있는 가족들이 가장의 권위를 치켜 세워주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고유한 모범

흐르는 물이 그 수원지보다 높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가족들도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한 아버지가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솔직하게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족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다.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이끌 때 자신이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을 수

도 없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교사들조차도 자신이 가르친 것과 자신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가? 그렇다면 가장의 언행일치는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청할 때, 아버지를 의지하고 지도 받는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아버지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가장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으며 그가 모범을 보이는데 무슨 거침이 있어야 하겠는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아버지가 가정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서는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

가정에서 아버지는 중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그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딤후 2:1)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 중재자적 역할이 가정의 아버지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intercessions-중재의 기도)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이 역할을 엄숙하게 돌아보면서 날마다 아내와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여야 한다. 가족들은 현재 영적으로 굶주려 있거나, 세

상적인 유혹을 받고 있거나, 심령이 다쳐서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오류에 빠져 있거나,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가 시급하게 중재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그의 눈은 재빨리 가족들의 문제를 알아차릴 것이고, 그의 마음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족들의 상황을 공감할 것이며, 그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다. 의인이었던 욥이 가족들과 즐겁게 잔치를 보낸 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혹시 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욥 1:5)라고 생각한 것을 볼 때, 욥의 동기와 가장인 아버지의 동기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욥의 행동이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욥이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의식은 오늘날 가정예배를 이끌어 가는 가장에게도 그대로 부과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매일 자신에게 날아오는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를 읽는 아버지는 가족들이 넘어지고 일어섬이 자신의 사명에 의해서 좌우됨을 알아차리며, 가족 주변에 선하거나 나쁜 것들이 항상 존재하면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살피는 사명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생략했을 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치는지도 알게 되면서 결코 자신의 사명을 생략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다짐을 할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처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에 가족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의 고백은 항상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말씀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없으며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엄숙하고, 애정이 넘치며, 확신을 가진 아버지의 고백인가! 또한 아버지는 가족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에 힘있게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정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잘못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준비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예배에서 그의 행동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도리어 가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최대한 가족들의 상황을 나의 상황인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다. 한 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는 가족들의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타의 지나친 관심은 가족들에게 해가 되며 가족들이 형식적으로 가정예배를 참여하는 것만 못하다.

아버지의 선행적 의무

가장은 신자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장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의무가 있다. 이를 잘 지켜야 한다. 성경의 명령에 따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의 면류관이요 부부의 영광이다. 부부로 맺어졌다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결코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과거 결혼식에서 서약했던 약속들을 서로가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서 남편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남자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여자의 머리 위에 남자가 있음(고전 11:3)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즉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성경이 시사한다. 영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따라서 남편은 가정예배를 이끄는 것에 앞서 ‘아내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 의무를 가장들이 현명하고 재치 있게 깨닫기를 바란다.

사무엘상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부패해가는 신앙을 위한 치료책

올리버 헤이우드(Oliver Heywood, 1629-1702) ¹⁾

나는 신실한 모니터가 되어 당신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적인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목사가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일은 가장들이 맡은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특정 영혼의 확신과 회심을 위해)이다. 이는 공적인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종교는 개인으로 시작하여 친척들에게 퍼지고 관계망이 더욱 확대된다. 또한 교회와 국가는 가정들로 구성된다. 경건의 쇠락과 신성모독의 범람은 일반적인 불평이다. 따라서 가정 경건의 회복보다 더 좋은 치유책이 없다. 위정자가 그들의 경륜과 모범을 통해 경건을 가르치는가? 위정자들은 잔악무도함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며, 거룩을 열심히 증진시키고, 이런 복된 변화를 약속

1) 비국교도 청교도 목사. 1622년에 강단에서 쫓겨나 파문되었다. 헤이우드는 대추방(Great Ejection)이후 주로 집에서 사적으로 말씀을 설교하였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구했는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헛되이 위정자들과 목회자들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세상이 아주 막 나간다고 불평한다. 그 세상을 고치려고 했는가? 자신에 대해 불평하지 않듯이 남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하나님에게 불평해서는 안 되듯 사람에게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개혁을 구하라. 지속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네 문 앞에서 울라. 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라. 가족과 더욱 친밀해지려는 기회를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에게 그들이 의지함으로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 은사를 계발하지 않으면 가장의 소홀함 때문에 그들의 죄가 발생하고 가장의 손에 가족의 피가 요구될 때 엄청난 책임을 져야한다.

가장들이여,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가족 모두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악한 시대를 만드려고 이 나라에 심판을 초래한 것은 바로 ‘가장’이다. 자신의 가족이 지옥의 고통 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자녀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마디 말을 하거나 바로 잡기위해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가장은 혐오스러운 작위의 죄는 물론 부작위의 죄에 대해 교훈을

받고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가장은 밖으로는 성도인 체 하지만 집에서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까닭에 위선적인 사람이다. 정말 정련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계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눅 1:6) 불경건한 무리에게 그대로 행하게 하고 끝까지 행하게 하라. 그들은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어떤 경건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문이 닫혔을 때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마 25:11)라고 울며 부르짖어도 너무 늦어 소용이 없다. 지금 부스리기 같은 자비일지라도 이를 구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눅 16:24)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위선을 지닌 자에게 잠언 1:24-31과 욥기 8:13-15, 27:8-10의 말씀을 진지하게 권한다. 하늘의 왕께서 가족과 함께 하루에 두 번씩 죄의 고백과 이에 대한 자비를 구함으로 주시려는 목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영광을 돌리며 짐을 맡기고 심을 주실 목적으로 그의 접견실로 들어오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결코 이 일을 반대하거나 지켜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 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금하신다. 병들어 먹지도 못할 상태에 빠지지 않은 한, 건강하다면 결코 식사 시간을 지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정해진 시간을 알고 지키라. 만약 시계가 정각을 알릴 때 아주 귀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주변 사람에게 당신이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정녕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보다 못한 노력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더 기울여야 한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변의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없었다. 그들은 교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가정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으며, 성경도 거의 읽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에 관해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물으면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왔고, ‘일단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다. 그들은 마음에 거짓 평화를 가지고 있으며 입술에는 헛된 고백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에 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A. W. 핑크(1886-1952)

시편 4편 3절-5절

³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⁴ 너희는 떨
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⁵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가정예배의 본질과 보증과 역사

J. W. 알렉산더(J. W. Alexander, 1804-1859)¹⁾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예배는 한 가정의 식구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은 은혜일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도는 공동체적인 행위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청원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헌신하도록 이끈 원칙이요 교회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 땅에 인간이 단지 두 명 뿐이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그

1)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의 장남,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수,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교에서 모두 가르침. 그러나 그가 가장 큰 열정을 기울인 것은 목회였다. 그는 1859년에 죽을 때까지 버지니아와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했다.

들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 꼭 붙어 앉을 것이다. 이것이 가정예배의 기초이다. 시간적으로는 땅 위에 인간이 두 명이었을 때부터였다. 이것이 낙원에서의 가정예배이다.

종교가 특별히 가족 관계에 속해야만 한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가족은 인간 사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이다. 인간의 창조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인간은 자발적인 결정이나 사회 계약에 의해 가족으로 결연된 것이 아니다. 가족으로 지음을 받은 까닭에 가족이다.

나는 구약역사를 우리의 예배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세계역사의 각 시기마다 가정예배를 찾아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예배가 역사의 매 시기마다 있었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구약성경은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친숙하게 가정예배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가 방주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되었을 때 드린 예배는 가정예배 형태였다.

물이 빠진 후, “노아가 여호와의 위하여 단을 쌓고”(창 8:20) 그가 드린 예배는 한 가족이 드린 희생 제사였다. 족장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배드렸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레(Moreh) 평지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창 12:6-8). 똑같은 일이 아이와 벧엘 사이에서도 행해진다. 또한 이삭은 그

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한다(창 26:25). 벧엘에 쌓은 야곱의 제단은 분명히 가족의 기념비였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창 35:1-2)고 했던 말에서 드러났다.

제단은 엘-벧엘(EL-BETH-EL)이라고 불린다. 가족에게 이어지는 종교적 유산들은 아브라함의 집(창 18:19)에서 뿌리를 내린 가정 종교를 귀히 여기셨던 여호와와 선언과 맥을 같이 한다. 욥이 그의 자녀를 위해 드린 예배는 지속적인 것이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욥 1:5)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매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명기는 가정 종교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하다. 특별히 우리는 6장의 말씀에 주목한다. 유월절은 -이후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지게 될- 가족 예식이었다.

구약성경 어디서나 선택한 자들은 이 종교의 가족적인 유대를 알고 있다.

여호수아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될 지경에 이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였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다윗은 성막에서 공예배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삼하 6:18) 다윗은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삼상 20:6)를 드린 아버지 집에서의 가족 간의 유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긴밀히 연관시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일어났던 회개와 겸비함을 선언하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가족별로 애통해한 것을 말한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슥 12:12-14)

신약성경에서 가족신앙의 흔적은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는 런던의 해밀턴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빌어 이렇게 묻고자 한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그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사자를 보내셨던 고넬료를 부러워하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

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행 10:2) 그는 가족-일가 친척은 물론 친구들까지 포함하여-의 구원을 위해 열심이 특심 하였고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사도가 와서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행 10:24, 31).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성경에 능하여 하나님의 도를 젊은 목회자에게 풀어 이를 수 있었던 아 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존경하는가? 당신은 그들이 성경을 그리 잘 알게 된 것이 ‘그들의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는가?(행 18:26, 롬 16:5)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이 말씀은 육신적인 돌봄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다락방에서, 감옥에서, 시장에서, 해변에서 제자들이 간구나 찬양에 참여하도록 이끈 공동체적인 기도의 영이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에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행 1:13, 16:25, 갈 4:12, 딤후 1:3).

초대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기록들은 미신적인 전통에 의해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뒤바뀌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단순하고 영적인 예배가 가톨릭의 사제들에 의해 집전된 예식에 물든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 신자들이 가정 예배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아야만 한다.

네안데르¹⁾(Johann August Wilhelm Neander, 1789-1850)는 우리에게는

1) 독일의 교회 역사가 및 신학자. 유대인으로 태어나 데이빗 멘델(David Mendel)이라는 이름을 가졌

전해지지 않는 책에서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그들은 특별한 하루 세 번, 아홉시, 열두시, 그리고 오후 세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 놓고 지켰다는 점에서 유대인을 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터툴리안(Tertullian, 약 155년-220년)²⁾이 말하였듯이 기도 시간과 관련하여 항상 어디서나 기도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식사 전에 목욕 전에 그들은 기도했다. 왜냐하면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영혼의 재충전과 자양분 공급은 몸의 재충전과 양식 공급에 선행해야만 했고 땅 이전에 하늘이 선행하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형제의 집에서 영접과 환대를 받고 떠날 때 그들은 ‘형제여, 당신 안에서 당신의 주를 보았습니다.’라는 기도로 이별하였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의 고전을 연구한 다른 학자의 말을 더할 수 있다. ‘무의미한 게으름으로 여가 시간을 소모하거나 시끄러운 놀이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과 미신적인 이야기의 반복과 이교들이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 대신 그들의 시간을 합리적이며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보내고 진리와 지식을 더하는 것과 하나님께

으나 개신교로 개종하고 네안더(Neander, 헬라어로 “새사람”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6권으로 된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General History of the Religion and the Church)를 썼다.

2) 고대 라틴 교부. 이교도로 태어났으나 개종하고 마침내 몬타니즘(Montanism)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떠났다. “삼위일체(trinit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드리는 찬송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는 그들의 사적인 놀이를 형성했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가장 선호하는 놀이였다. 이런 놀이로부터 받은 경건한 영향이 채워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열심을 품은 채 고통의 장면을 직면하게 한다. 영혼의 재충전을 위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탁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식욕을 채우는 것보다 노동으로부터 잠깐의 휴식을 갈망했다. 물레의 가락에 얹은 젊은 여인들과 가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년의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노래들을 흥얼거렸다.’

제롬은 자신이 살았던 장소를 말하기를 ‘그곳은 쟁기를 갈러 나가는 농부가 할렐루야송을 부르고, 잔디 깎는 이도 찬송을 부르며, 포도나무 재배업자가 시편찬송 부르는 것을 듣지 않고서는 일하러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단지 낮에나 식사 시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가족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 그 때 구약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이어서 찬송과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밤새 그들을 보존하여 주신 것, 다시금 건강한 몸과 온전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신 선하심에 대해 감사드리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졌고, 동시에 그 날 만나게 될 어려움과 유혹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모든 의무에 성실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에 가족이 다시 모였다. 그 때 아침과 같은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다른데 아침에 드린 예배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길다. 아침에 드리는 예배의 요소 외에도 그들은 기도와 시편찬송으로 찬송하기, 존경스런 고전의 실행을 위해 한 밤중에 일어나야 했다. 케이브(Cave) 박사가 가정한 대로 감히 낮에는 모일 수가 없었던 박해의 시기에 기원을 둔 것으로 오직 밤에만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³⁾

종교개혁기의 복음주의적 경건의 부흥기로 눈을 돌릴 때 일련의 권위와 모범이 중심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의 타락한 후손들의 관습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가정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루터의 기도는 당시의 사람들과 전기 작가들에 의해 온정적으로 기록된다. 독일교회는 부흥기에 가정에서의 경건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복을 받았다. 비슷한 사실이 스위스와 프랑스 그리고 화란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도 가정의 불빛이 스코틀랜드에서보다 더 밝게 빛나지는 않았다. 가정예배의 정점기는 바로 첫 종교개혁기이다. 아마 어떤 나라도 거주민들의 비율로 따져볼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한 가정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어떤 나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1647년에 총회(the General Assembly)⁴⁾는 가정예배모범(Directory for Family Worship)을 발행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3) 기독교회의 고대성(The Antiquities of the Christian Church), 리먼 콜먼(Lyman Coleman), 제2판, 375.

4) 총회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최고 치리회이다(물론 다른 지역의 장로교들과 다르지 않다). 총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가진다.

“II. 가정의 경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러지는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가 포함된다. 첫째,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의 교회⁵⁾와 국가의 공적 상황과 필요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 들 개개인의 현재 상태와 관련지어서 드릴 수 있다. 다음은 성경교육을 포함하는 성경읽기인데, 이 때 본문과 관련된 교육은 신앙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하여, 공예배 에 참여했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거룩한 신앙으로 교훈할 수 있는 경건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합당한 이유로 가족구성원에게 권면하거나 책망할 수 있다.

IV. 가장은 가족 중 어느 한 사람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가장에게 속한 것이므로, 목회자는 게으른 가장을 분발시키고 연약한 자는 훈련시켜서 자기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⁶⁾

“XI.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

5) 교회(Kirk는 church의 스코틀랜드 방언 형태)는 헬라어로 “주님의”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kuriakos에서 나온다.

6) [웨스트민스터 가정예배 모범], 김준범 역 (서울: 고려서원), 94-96. 참조.

용해야 한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은 우선 정해진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것만을 가지고 만족해하거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기도의 영을 깨우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또는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인 경건 시간에 자기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입을 열어 잘 아룰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 한다.”

“X. 가정예배의 이러한 활동은 미루지 말고 신실하게, 그리고 세상적인 일이나 모든 방해물에 막히지 말고 시행되어야 한다. 무신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이 있다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혹독한 교정을 생각하면 굴할 수 없다. 가정예배를 더욱 잘 지키려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며 돌보고 있는 모든 다른 가정에게 가정예배를 소개하고 더욱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예배의 의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은 교회 법정에 의해 질문되는 문제였다. 노회에 의한 교회 시찰을 위한 문건들 중 하나인 1596년의 총회법(the Act of Assembly, 1638년 12월 17일-18일에 공인된)에 의해 다음 질문들이 가장들에게 던져졌다.

“장로들이 한 분기가 지나기 전에 가정과 할당된 구역을 심방하여 가족들 각각에게 질문을 하는가? 그들은 구역의 각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 역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 목회 심방을 하는가? 각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과 성경읽기로 이루어진 예배가 드러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종들의 의무에 관하여 묻고 있는가? 그들이 가족 또는 가정예배와 공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요리문답교육을 하고 있는가?”⁷⁾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는데 이 고백서는 바로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우리가 여전히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백서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시는데 가정예배나 사적인 예배에서도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⁸⁾

이 원칙에 입각하여 가정예배의 시행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내에서 보편적이게 되었고 영국(England) 내 이 신앙고백을 반대하는 자들(Dissenter)⁹⁾ 사이에서도 그러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특별히 외딴 통나무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매일 찬양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보다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더 뚜렷한 것이

7) 총회와 노회 절차법에 관한 “1705년 총회 서문”에서 인용.

8)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21장 6항.

9) 교회법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 용어는 17세기에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는데 1689년에 관용의 법(Toleration Act)의 통과 후에 특히 그러하다.

없다. 해밀턴은 말하기를 “나는 가끔 커다란 집에서 드러지는 가정예배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통나무집의 땅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이 없다. 나는 헛간에서 소작인들이 드리는 가정예배를 본 적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해협과 호수 위의 어선에서 예배가 드러지곤 했다. 나는 석탄갱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뉴잉글랜드의 선조들도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후손에게 같은 전통을 남겼다. 오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닥친 시기에 무엇보다 타격을 입어 쇠퇴하고 타락하였던 것은 바로 영적 예배로서의 가정예배에 대한 존중이다. 이것은 유럽 대륙의 개신교 교회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가정예배는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실행되지도 않았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성취가 똑같이 나타났던 각 나라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졌을 때조차 볼 수 있다. 특별히 프랑스와 스위스는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지체들의 경우처럼 매일의 예배를 높이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에서 말한 가정예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진 예에 반박보다는 특별한 예외로 구분했다. 기독교 여행자들은 안식일 준수와 같은 주제에 대한 더 나은 견해들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마도 독일이나 대륙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번역되고 있

는 것에 공을 돌릴 수 있고, 그 나라들에서 지난 몇 년간 그 번역
서들이 회람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언급한 바대로 교회의 보편적인 목소리에 따르면 교회의 최고
영광스런 기간에는 가정예배에 신실하였다. 그 이유 또한 분명
하다. 가정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가지고 있는 아무
것도 아낌이 없고 그리고 은혜롭기 그지없는 관계(이것이야말로 가정
의 여러 필요와 유혹과 위험과 죄들로 인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인데)로 인해 하
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다. 또한 가정이라는 기관의 조건을 고려
할 때 가정이야말로 그런 예배가 지속되기에 최고로 적합하고 알
맞은 기관이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
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예배의 추억

존 패이튼(John G. Paton, 1824-1907)¹⁾

빛이 겨우 들어오는 창문 아래 침대와 작은 책걸상만 놓을 수 있는 두 개의 방 사이에는 매우 자그마한 크기의 ‘골방’ 하나가 있었다. 이 작은 집에서 그 골방은 거룩한 장소였다. 아버지는 보통 식사가 끝나면 이곳에 들어가 문을 닫으셨다. 우리는 영적인 본능으로 아버지께서 지성소(至聖所) 안의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명을 위해 매달리듯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 거룩한 대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발끝으로 골방 문 옆을 지나다녔다. 아버지 얼굴에 늘 드리워져 있는 그 행복하고 환한 미소가 이 골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다. 또 한 그것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당이라 해서 다른 곳보다 친밀하

1) 식인종들의 사도. 뉴헤브리디즈 군도의 식인종들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이다. 스코틀랜드 개혁장로교회 소속.

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패나 불행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찾아온다. 그 때마다 나의 영혼은 어렸을 적 그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엎드린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 ‘아버지처럼 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며 모든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아버지 스스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던 때에 중요한 신앙적 결단의 열매가 있었다.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하게 지켜낸 결단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할아버지의 가족은 안식일(Sabbath Day)에만 가정예배를 드렸었다. 할머니와 뜻을 같이 하게 된 아버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가족 모두 이러한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옛 신앙용사들이 겪어낸 그 엄청난 영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열일곱 살에 시작된 가족 기도 생활은 돌아가시기 전 일흔일곱의 나이까지 거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살아계신 마지막 날까지도 시편을 읽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가족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축복의 기도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생전에 아버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들을 가져가 그 제단에 자신과 자녀를 바쳤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소비에 몰두하거나 사업에 쫓기거나 혹은 친구생활에 열중하거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오락에 치중하는 삶을 살지 않았

다. 최소한 그 가족제단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 있었다. 가족 중 누구도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도 복된 빛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 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토르쎈발드(Torthorwald) 마을에 행실이 제일 안 좋은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음란한 생활에 빠져있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 하나가 그녀를 절망과 자살의 지옥으로부터 구해낸 것이다. 어두운 겨울 밤 그녀는 우리집 창문 아래를 지나다가 가정예배 중 기도하고 있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악한 길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 죄인들을 변화시키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쓴 보석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였다. 그녀는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선한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런 생각이 저를 지옥 밖으로 꺼내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그 뜻에 일치시키고자 했다. 이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신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조건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장남인 나와 한참 손아래 동생인 월터(Walter), 열한 명 중 막내인 제임스(James)가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세 아

들이 거룩한 사역지(The Holy Office)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기 위해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교회로 가는 4마일의 거리는 어린 영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신선한 자극을 제공했다. 가끔 도시생활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이 우리의 눈을 충족시켜 주기도 했다. 그 당시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경건한 형제자매들이 때때로 덤프리즈(Dumfries)에 속한 같은 교구에 있는 다른 사역자에게 다녀오곤 했다. 이 기간 교구교회(the Parish Church)에서는 참으로 많은 예배가 이뤄졌다. 교회로 오고 가는 중에 경건한 시골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무엇인지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영적 기대를 가득 품고 교회로 향하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변화될 준비와 강한 열망을 가지고 본교회로 돌아왔다. 이처럼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풍부한 지성적 새로움을 제공하며 그 마음이 영적인 관심으로 더욱 불붙게 한다.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진실한 것이었다. 그저 겉치레로 꾸며낸 신앙대화가 아니었다. 내부의 깊은 인격으로부터 나온 신실한 소산물이었다. 단순히 흥미를 일으키거나 반대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대화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 가족은 주일저녁 특별한 성경읽기 시간을 가졌다. 우리를 방문한 사람들까지 차례로 돌아가며 성경을 읽었는데,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 그리고 설명이 따랐다. 이러한 성경읽기 모임은 자신의 외아들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넣게 했다. 소요리 문답(The Shorter Catechism)도 정기적으로 자세히 공부해 나갔다. 공부 중에 제기되는 물음들이 모두 설명되어질 때까지 질문이 계속 되었다. 이는 물론 성경본문을 증거로 인용함으로써 말씀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 가끔 이러한 ‘교리문답(catechizing)’방식이 신앙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모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그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리문답 방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초석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질문과 대답들이 더 깊어지거나 수정되어졌으며 그 누구도 다른 방식의 훈련을 원하는 적은 없었다. 물론 부모가 경건하거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를 몹시 고되게 하고 위선적이거나 그릇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 분명하다!

가족과 함께한 안식일 저녁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빛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리고 걸 문을 닫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 가족이 보내기에는 더없이 거룩하고 행복하며 따뜻한 저녁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들으신 설교의 본질에 관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며 돌마루 양쪽 맞은편을 얼마나 중황무진 누비셨는지 모른다. 두 분사이의 견해차로 인한 것이거나 어머니께서 때로 교회로부터 가져오시는 ‘의문점’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보다 새롭고 풍성한 이해를 기대하며 이를 기꺼이 기회로 삼으셨다. 아버지는 또한 몇몇 신앙 개념들을 생각해내기 위

해 우리의 도움을 부추기기도 했다. 우리가 ‘노트에 필기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거기에 적힌 내용들을 읽으시며 우리의 대답을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이야기나 선교사의 회고담, 천로역정 속 은유와 상징 등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환해 가셨는지 모른다. 이때는 실제로 경연과 같았다. 우리 중 누군가 큰 소리로 읽으면 다른 형제들은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견해나 실례를 곁들이셨다. 그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에 대해 쓰고 말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양육 방식이 있는 가정에서 열한 명의 우리가 자라났다. 지금껏 우리 중 누구에게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방식이 우둔하고 따분하다든지 아니면 가족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삶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
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교도와 그리스도인

존 패이튼(John G. Paton, 1824-1907)¹⁾

남태평양 식민종들의 선교사였던 존 패이튼의 ‘Missionary Patriarch, The True Story of John G. Paton’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훌륭한 자서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다. 식민종들과 사투를 벌인 몇 해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패이튼의 우물작업을 통하여 아니와(Aniwa) 사람들이 이교신앙을 버리고 전능자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셨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란, 그들의 늙은 추장 나마케이(Namakei)는 패이튼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다.

“아니와(Aniwa) 여러분, 이 땅에 여호와와 말씀이 임한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땅에서 비가 솟아오르는 것을 그 누가 기대했던 말입니까? 비는 늘 구름으로부터 내리지 않았습니

1) 식민종들의 사도. 뉴헤브리디즈 군도의 식민종들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이다. 스코틀랜드 개혁장로교회 소속.

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와의 어떤 신도 그분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았기에 이제는 깊은 땅 속에서도 비가 솟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이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결코 보고 듣지 못했던 광경입니다.”(손을 올려 가슴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다.)

“마음속 무언가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그분을 알려 주기 전에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분이십니다. 산호를 치우고 땅을 깨끗이 한 후 그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뿐 물은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약한 우리의 눈이 그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죽어 산호 조각과 먼지더미가 이 늙은 눈을 덮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준 것으로 땅에서 솟아난 비를 보게 된 것 그 이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샘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아니와의 신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울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생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서 우리 조상이 두려워하던 아니와의 우상 신들을 가져와 복음의 발 앞에 내던져 버립시다. 나무와 돌로 된 우상들을 불 태워 묻어버리고 부숴버립시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여호와와는 이 샘을 우리에게 주심과 더불어 다른 복들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 주셨고, 또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분이 아니십니까. 이는 패이튼 선교사가 아니와에 온 이후 매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였던 바입니다. 처음에는 패이튼을 보고 웃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를 신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으로부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추장 나마케이는 이제 주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섭니다!”

이 같은 추장의 연설과 우물작업이 아니와를 이교신앙에서 돌이켰다. 그날 오후 추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들을 가져와 내 발 아래에 내려놔다. 이러한 열렬함이 몇 주간의 시간을 얼마나 뜨겁게 달구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돌과 나무로 된 그들의 신을 신고 와 산더미같이 쌓아올렸다. 눈물을 흘리거나 “여호와! 여호와!”라고 외치며 불꽃에 우상들을 던져 태워버렸다. 혹은 십오 피트 정도 깊이로 땅에 구멍을 내어 묻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거나 미신행위를 일깨워 주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깊은 바다 속 멀리 그 우상들을 가라앉혔다. 그것을 응시하는 어떤 이교도의 눈길도 없었다.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보상을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우상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불쾌함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

고 자유롭게 가져와 부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에 몇몇은 되가져가 자신의 집 안에 한동안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우상을 사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가져온 것들을 내던지며 경멸에 가득 차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모임이 시작되고 여러 이야기가 속속히 도착했다. 이곳 뉴 헤브리디즈인들(New Hebrideans)은 열정이 넘치는 화려한 연설가들이었다. 많은 이야기와 더불어 기막힌 실력의 관련 그림도 뒤따랐다. 이 가운데 아니와의 우상들은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갔다. 또한 신실한 두 남성과 몇몇 사람이 모여 일종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일부 우상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온전히 회심치 못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복돋아 주는 활동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열정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그 시간 가운데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다.

아니와 사람들은 매 모임마다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관하여 열심히 들었다. 의복생활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그들이 만장일치로 기꺼이 받아들인 첫 번째 신앙훈련 중 하나는 매 식사 때마다 주신 양식을 찬양하며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교도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교도가 존재한단 말인가?) 다음 단계로 마치 공동의 합의를 이룬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의 가정예배를 받아들였다. 이는 실로 기쁘고 놀라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상되는 바였듯이 그들의 기도는 매우 기묘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미신적 요소들이 섞여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은 분명 우상이 아닌 공허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가 틀림없었다.

그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은 분명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서도 현저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아침과 저녁의 가정예배와 식사기도 등 신앙훈련의 외적 표지를 그들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따라했다. 더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모두 이교도로 여겨졌다. 새로이 받아들인 기독교신앙에 대한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증거였다. 가정예배 자체가 신앙의 테스트로서 어떤 식으로든 쉽게 통과될 수 없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스도인의 가정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¹⁾

서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노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존귀한 그릇이 되고 선행을 할 준비를 해라(딤후 6:18).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공부해야 한다(빌 1:10).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고전 12:31)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 기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딤후 2:13, 벧후 3:11).

1) 영국 비국교회 설교가이자 우화작가. 『넘치는 은총』과 『천로역정』의 저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세상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책임과 사명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원한다.

만약 그대가 가장이라면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과 그것들을 신실하게 수종들기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1. 가족에 대한 의무

한 가족의 가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바로 그의 가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의 외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이다.

i. 가족의 영적인 상태

첫 번째는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일이다. 가장은 부지런히 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이 시작된 곳에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며, 믿음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시작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그의 가족 앞에, 각 사람에게 알맞도록 부지런히 또 자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고유한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빌 4:8-9)고 분명한 어조로 조언하였다.

가정 안에서 이 경건한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아주 칭찬받을만한 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 가장에게 매우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한 그분의 종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창 18:19) 이것은 또한 여호수아가 생전에 행했던 일로서 다음과 같은 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약에서 ‘만약 한 남자가 그의 가족을 경건하게 행하도록 이끄는 데 신실하지 못하다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으로 피택 되기에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딤후전 3:4-5). 또한 하나님께서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찌니”(딤후 3:12)라고 말씀하신다.

사도는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한 남자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집사가 될 수 있는 조건들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했으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모르는 남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명확함에 주목해야 한다. 목사의 한 가지 자격 조건에 대한 이러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이 기준은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정의 책임에 대한 해안을 준다. 목사의 책임과 가정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보라.

- 1) 목사는 반드시 교리에 있어 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한 가족의 가장 또한 그러하다(딤후 1:9, 엡 6:4).
- 2)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할 줄 알아야 하며, 한 가족의 가장 또한 그러하다(딤후 3:2, 신 6:7).
- 3) 목사는 반드시 믿음과 거룩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한 가족의 가장 또한 그러하다(딤후 3:2-4, 4:12).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시 101:2)라고 말하였다.
- 4) 목사는 교회가 함께 모이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또한 한 가족의 그리스도인 가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모든 선한 일에 반발하는 경진

하지 않고, 다스리기 힘든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호소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1)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나 당신은 반드시 그들을 다스려야 하고 결코 그들이 당신을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장은 하나님에 의해 그들 위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주님께 대적하는 악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비록 충분하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 일이며, 다윗 왕도 했던 일이다(삼상 2:24-25, 대상 28:9). 또한 가장은 반드시 예전에 그들의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를 말하며 마귀의 덫으로부터 구하도록 땀 흘려 수고해야 한다(막 5:19).

2) 가장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회심케 하실지도 모른다. 야곱은 그의 집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창 35:3)라고 말했다. 분명히 성령님으로 인해 올바르게 인도받는 한 영혼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수고해야 한다(요 4:28-30).

3) 만약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다면 경건하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모

이게 했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행 10). 우리는 간수, 루디아, 그리스보, 가이오와 다른 이들을 알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설교된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으며,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들 가운데 몇몇은 그들의 집에서 말씀이 설교되도록 사도들을 청했다(행 16:14-34, 18:7-8, 고전 1:16). 그리고 이런 점은 사도들이 그 당시에 공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며 가르치고 설교했던 많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회심하지 않고 있던 그들의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다(행 10:24, 20:20-21).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얼마나 통상적이었는지를 알 것이다. 이들은 고난 중에 있었거나, 그 분에게 나오지 않았거나,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눅 7:2-3, 8:41). 만약 가족 중에 외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4)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가족에게 수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살피라. 만약 당신의 가족 중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면 더욱 힘을 내라. 만약 가족 중에 당신이 홀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다는 사실과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당신의 가족을 위해 온 교회가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당신의 집 안에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이며, 이단적인 책들이나 악한 대화를 허용하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신성모독적이고 이단적인 책들은 악한 삶을 살도록 하거나 적어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 반발하도록 한다. 물론 말씀 안에 확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믿음이나 거룩을 공격하는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의 목사와 가족의 가장에 의해 거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한 야곱의 본보기를 볼 수 있다(창 35:2). 사도행전 역시 이것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행 19:19) 악한 책들과 악한 대화를 집으로부터 제거하는데 실패함으로 많은 가족, 아내와 아이들을 망하게 했다. 많은 이가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다. 헛된 말쟁이들은 그들의 속임수로 온 가족의 신앙을 함몰시켜 버린다(딤후 1:10). 그러므로 그들은 당신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파괴할 수 있다.

ii. 가족의 외적인 상태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의 외적인 상태에 대한 일이다. 이 일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보라.

- 1)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알맞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성경이 당신의 친척들을 돌보라고 말할 때 당신의 돌봄에 있어 은혜롭지 않아도 되거나 당신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동안 가족의 필요들을 무시해도 되는 핑계거리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가족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챙기고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만약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할 수 없다면 가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다(딤후 6:8, 마 6:34). 이는 가장에게 주어진 일이며 실패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먹이시고, 참새들을 돌보시고, 들꿀들을 입히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신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남편이 마음을 다해 행할 의무이다.

2)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려는 가장의 모든 노력이 관용과 친절과 함께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벧 4:5)고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개인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들과 은혜로 수행해야 할 의무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방해할 정도로 이 세상을 힘써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가족을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은 참으로 악하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

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고전 7:29-31)

많은 기독교인은 종교가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과 쾌락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세상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눅 10:40-42).

3) 만약 당신이 한 가정의 경건한 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 아래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화목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 i) 가장은 반드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하나님 한 분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 분께서 당신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삼상 3:11-14).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복장이나 말 등 모든 일에 있어 스스로를 절제하도록 하며, 식탐을 부리거나 술에 취하거나 서로에게 어리석게 굴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 ii) 가정 안에서 당신에게 범해진 죄와 하나님께 범해진 죄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께는 매우 열정적이고, 그 분께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들은 무시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상처는 망각 속에 묻으며 항상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는 말씀을 기억해라. 상처를 받았을 때 불같이 격노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쏘아보는 가

장이 되지 마라. 그렇게 되기보다는 옷어 넘겨버리거나 책망을 하더라도 심한 책망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폐를 끼쳤을 때는 심각하게 주의를 주어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기억해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딤후 3:4)

2.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가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하려면 자신의 아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녀의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만약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하라.

i. 아내가 믿는 자라면

1) 반드시 그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녀는 진주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잠 12:4, 31:1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30)

2)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i) 아내는 자신의 삶과 뼈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엡 5:29)

ii) 아내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벧전 3:7). 자신과 아내

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한 쌍이며, 함께 영원한 행복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3) 남편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행동해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5)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때, 더 이상 그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자가 된 남편과 아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는 달콤한 향기가 배어 있다.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며,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엡 5:23)

이것은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한 쌍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목적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아내를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는 남편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로 하여금 그러한 다스림의 유익을 잃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관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좌절케 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28-29)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지혜를 전달해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교회를 도우신다. 이와 같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의 약점을 참아주어라. 아내가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또한 더 악한 그릇인 아내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벧전 3:7).

한 마디로 믿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남편을 주신 게 아니라 날마다 내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말과 행동으로 설교하고 증거하는 남편을 주셨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만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

ii. 아내가 믿지 않는 자라면

두 번째로 만약 아내가 믿지 않는 자라면 남편 앞에 의무가 놓여 있으며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1) 아내는 영원한 형벌의 계속되는 심판 아래 놓여있다.

2) 그녀는 자신의 아내이며, 현재 악한 상태에 있다.

아, 자신의 가슴에 살아 숨 쉬는 영혼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의 이해 부족은 아내 앞에서의 비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통해 잘 나타난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어야 한다.

1) 자신의 가슴이 아내의 영혼을 위해 간절해지도록 생명을 잃은

그녀의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라.

2)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어떠한 이유조차 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두 배로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 아내는 남편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아주 작은 오점조차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만약 아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도록 그녀의 악한 본성을 따라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제멋대로 군다면, 남편의 선행으로 그녀의 악함을 이기고, 자신의 인내와 겸손으로 그녀의 오만을 이기도록 노력하라.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당신이 악을 악으로 대항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4) 아내를 설득할 적절한 기회를 취하라. 그녀의 기분을 잘 살피고, 가장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 아내의 마음에 말해라.

5) 아내에게 말할 때, 목적을 가지고 말해라. 적절하기만 하다면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다. 욥은 그의 아내에게 적은 말로 대답함으로 그녀의 어리석은 말문을 닫았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욥 2:10)

6) 모든 일에 비꼬는 태도나 조금이라도 화를 내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실천해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딤후 2:25-26)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고전 7:16)



여성이 인도하는 가정예배

존 하웨(John Howe, 1630-1705)¹⁾

질문 남편이나 가장이 가정예배에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거나 지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때 아내가 남편의 의무를 대신해서 가정예배를 이끌 수 있는가?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과부의 가정과 여성만 있는 가정은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답 우선 한 규칙이 모든 경우에 접합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크고 다양한 일들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존 하웨(1630-1705) 목사는 영국 러프러버에 태어난 청교도 비국교도 목회자였다. 그는 저술가요 설교자로 알려졌으며 올리버 크롬웰의 전속목사였다.

1. 아내에게도 가정을 다스리는 권한이 실제적으로 있다. 아내는 남편과 부부로 있는 동안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집을 다스리는 아내”-이 그것을 지지한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oikodespotein’인데, ‘명령하고 지휘권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경이 아내에게 다스리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거나 가족들을 돌볼 친척들이 없는 가정에서 아내가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 누구도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내를 비난할 수 없고 그 권한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한을 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같다.

2. 남편이 죽어서 혼자 있는 과부에게 신앙과 사려분별이 있는 아들이 있다면 그녀가 아들을 임명해서 가정예배를 이끌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아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할지라도 가장의 권위는 과부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예배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과부의 권한은 누구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 없다.

3. 남성 없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정에서는 여성이 가정예배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4. 가족 중에 남자들이 있으나 불가피하게 여성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야 될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에스더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에스더는 자신의 시녀와 어린 처녀들을 동원해서 그 가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비록 에스더가 여성이었을지라도 가장이 되어 가족들을 이끌어야만 했다. 에스더가 가장으로서 그 권한을 탁월하고 지혜롭게 발휘한 점은 그의 가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 일이다. 그 결과로 유다 온 가족들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참으로 에스더는 여성이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여 받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
 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가정예배 규범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1647년)

“가정예배 규범”은 칼빈주의 전통에서 개인 혹은 가정예배를 개괄적으로 지시하는 책이다. 이 예배 규범이 웨스트민스터 총회(1647년)의 산물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책이 개인 예배 규범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이 예배 규범은 1647년 8월 24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총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후, 이 예배 규범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가정예배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들에게 그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 예배 규범은 1733년 필라델피아 공회에 의해 강조되기도 했다. 아래의 번역본은 1647년에 작성된 〈가정예배 규범〉을 현대 영어로 수정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현대 영어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첨가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17세기 원본보다는 현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더 수월한 듯하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는 공적인 예배가 경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은밀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이 함께 모여서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필요하고 적합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개혁과 함께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경건의 고백과 능력이 도모되어야 한다.

1. 첫 번째로 은밀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기도와 묵상은 형언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유익은 오직 이에 임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인지할 수 있다. 기도와 묵상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며 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묵사는 모든 사람이 아침과 저녁으로 또 특별한 때에 기도와 묵상에 임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각 가정의 가장들 또한 자신과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와 묵상에 부지런히 임하도록 살필 의무가 있다.

2. 경건한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무는 교회와 국가와 가정의 모든 구성원의 삶과 현재의 필요를 아우르는 기도와 찬양이다. 두 번째 의무는 성경을 읽는 것인데 본문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곁들임으로써 모든 이가(특히 어린이)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또 자신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더 큰 유익을

얻도록 한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과 함께 토의가 있어야 하며 그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 합당한 책망과 권면 역시 따라야 한다.

3.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목사 직분을 가진 자의 의무이다. 그 직분을 위해 합당하게 부름을 받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그 의무를 빼앗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가족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은 가장이 특별하게 부름 받은 의무이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토의하며 적용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읽은 말씀에 어떤 죄가 책망 받는다면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죄를 경계하도록 적용해야 하며, 만약 읽은 말씀에 신적인 심판이 언급되거나 묘사된다면 모든 가족에게 부주의로 인해 동일한 심판이나 더 심한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읽은 말씀에 어떤 의무가 명령되거나 어떤 위로가 약속된다면 가족 개개인이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힘을 구하거나, 그 위로를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 있어 가장이 인도를 맡을 것이며 가족은 질문이나 의심에 대한 대답을 그로부터 구해야 한다.

4. 가장은 가족 중 어떤 이든지 가정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더 나아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이 한 가족의 가장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목사는 게으른 자를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훈련하여 이 책임을 다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한 가장이 장로회로부터 승인 받은 이를 찾아가 자신과 그의 가정을 훈련하도록 하는 일은 합당하다. 만약 한 가족의 가장이 가정예배를 인도하기에 부당하다면, 그 가족 중 목사와 당회로부터 승인 받은 다른 이가 예배를 인도하며 목사와 당회는 그들이 추천한 이가 가정예배를 이끄는 것에 대해 장로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한 목사가 가정예배에 참석해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면, 가족 중 몇몇만 모임(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모든 가족이 가정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5. 누구든지 게으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있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자는 설사 그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자원할 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때 오류가 교묘하게 가정에 들어가 분열을 일으키며 분별이 없는 자와 생각이 없는 자를 미혹하게 된다.

6. 가정예배는 반드시 사적으로 지켜질 것이며 널리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이가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식사를 위해 손님으로 참석하거나, 그 가정예배에 초대되어야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비록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시기(공적 예배가 불가능한 시기)에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분명히 사용하시며 축복하

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는 여러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권장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각 가정이나 그 가정의 개개인이 온전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며, 때때로 공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침해하고, 한 회중에 속한 가정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한 교회를 분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약점이 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큰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8. 주일에는 가족 개개인이 홀로 예배를 위해 준비와 기도를 마친 후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마음이 예배에 적합하게 준비되도록 또 예배 시간이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주님께 구할 것이며, 그 후에 가장은 그의 돌봄 아래에 있는 모든 이가 공적 예배에 참석하며 지역 회중의 일부가 되도록 살피야 한다. 그렇게 공적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에 가장은 가족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야 하며, 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함께 토의하는 일을 위해 구별되거나 가족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묵상과 기도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공적 예배의 축복과 유익이 합당하게 증가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각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9.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며 믿음에 있어 어린 자들은 정해진 기도 지침을 사용함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기도 지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들이 기도 지침을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셔서 가족의 필요를 떠올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10.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실 되어야 하며,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되고, 모든 세상적인 방해와 장애물을 피해서 드려야 한다. 가정예배는 무신론자와 세상적인 사람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모든 장로는 자신을 먼저 추스려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 본을 보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살핌 아래 놓인 모든 가정에 가정예배를 시도하고 소개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

11. 위에 명시된 가정예배의 일반적인 의무 외에 주님께서 한 가정을 그 분의 섭리적인 사역으로 부르실 때 겸손하거나 회개하거나 감사드릴 특별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가족이 수행하여야 한다.

12.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권면하도록 요구하기에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항상 자신과 다른 이의 상호 간의 교제하는 일에 부지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는 특히 저속한 대화가 창궐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에 놀라워하는 오늘날에 특별히 필요하다. 이러한 격려는 교훈, 책망, 꾸짖음으로부터 오며 각 사람이 다른 이로 하여금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을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감을 통해 온다. 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혹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라는 권면으로부터 온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이가 힘든 시기에 조언과 위로를 구할 때나 죄를 지은 사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개인적으로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할 때 특히 필요하다.

13. 모든 사람이 양심 가운데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항상 올바른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생겼다면 사적이고 공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다면 반드시 목사나 다른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신중하게 혹은 겸손하게 생각해보았을 때 괴로움에 빠진 사람의 성별이나 상태 때문에 혹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증인으로 대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

14.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러 가정의 구성원이 때때로 직업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함께 개개인의 가정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의무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중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입에서 부패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되 듣는 이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한다.

이 모든 지시의 목적과 범위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모든 목사와 회원 사이에 경건의 능력과 실천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도모되며, 모든 불경건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롱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오류, 추문, 분열, 분쟁을 담고 있거나 공적 예배와 사역을 무시하는 혹은 진리와 평안과 반대되며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아닌 육신의 일과 관련된 다른 죄악을 야기하는 모든 모임과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가정예배를 위한 실제적 조언

김정열(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본지 발행인)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새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갓 결혼하여 새로이 꾸며진 가정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백성과 그 가정이 이렇게 대를 물려가며 그 예배 전통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경건하게 유지되길 바라고 계신다.

하지만 가정예배는 쉽지 않다. 과거 경건한 신앙전통에 서있던 청교도들과 개혁신의자들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그 실천을 강조하였다. 시대를 초

월하여 가정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계들이 언제나 성도들과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다. 분주한 일상,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엇갈리는 시간이 가정예배를 어렵게 한다.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을 지속하길 원하는 가정은 여전히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원한다면 당연히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그동안 중단된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고 경건하게 유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정예배를 준비하려 할 때 대부분 가정예배의 방법론에 관하여 궁금하게 여긴다. 과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 방법에 관하여 고민한다. 물론 가정예배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초적 자세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요 4:24). 규칙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라 규모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게 드리는 예배를 마치 예배의 전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다. 만일 당신의 가정이 아직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

다면,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을 따라 바른 예배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먼저 정할 것을 결정한 뒤에 가정의 형편을 따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가정예배를 위하여 일반화된 규칙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간소하게 드러지는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물론 이에 앞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결정하고 어디에서 얼마동안 드릴 것인지를 간단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를 확실하게 기억하여야 한다.

2. 찬양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드릴 수도 있다.

3. 성경읽기

정해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되, 가족이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을 수 있다.

4. 간략한 해설 혹은 설교

굳이 설교를 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교훈하고 교화하는 힘이 있다. 필요하다면 매일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경전한 묵상집의 해설을 함께 읽는 것도 좋다.

5. 기도와 주기도문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짧게 한 마디씩 기도하거나 가장이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릴 경우 가장은 자녀

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략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기도의 전형이다.

각 가정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 자녀의 연령은 물론이고 함께 할 시간도 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정예배를 드리기에는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린 경우도 있어서 부부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가장이 너무 분주하여 예배를 인도하거나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저런 이유가 가정예배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하며 가정의 형편을 따라 조금씩 변형하여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가령 간략하게 기도한 뒤에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다. 다른 순서 없이 기도와 성경읽기 그리고 짧은 설명이 따를 수도 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라면 특별히 성경 가운데 잠언을 읽을 수 있다. 잠언은 하루에 한 장,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한 권의 성경만 읽기보다는 모든 성경(Whole Bible)을 골고루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나마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득이하게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에는 가장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정에서 가장의 주도아래 교리를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하도록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가정으로서 가

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실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침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밤 동안 평안히 보호하여 주심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모든 죄와 잘못된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옵소서. 내 몸과 영과 기타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더불어 같이 하사 악한 원수가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은총 속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도하기는 오늘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총 중에 이 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영과 기타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의 거룩한 천사가 나와 더불어 같이 하사 악한 원수가 저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The Free Grace Broadcaster

DISTRIBUTION

프리 그레이스 브로드캐스터 배부처 안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30여국에 있는 기관들에서 “프리 그레이스 브로드캐스터(The Free Grace Broadcaster)”를 배부하고 있으며, 그 중 몇 개국에서는 자국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원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www.chapellibrary.org/broadcaste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hapel Library of Australia

Pastor Malcolm Eglinton
c/o Maitland Christian Fellowship
PO Box 216
Maitland 5573
Australia
ebrosmgr@bigpond.com
one year FGB subscription: Au\$5
inc. GST

Chapel Library of Brazil

c/o Editor Fiel
C. P. 1601
Sao Jose dos Campos
SP 12230-990
Brazil
no charge

Chapel Library of Colombia

Nelson Parodi
Iglesia Bautista la Gracia de Dios
Calle 37 #50-60
Interior 202
Medellin
Colombia
chapel.library.colombia@gmail.com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Ghana

Pastor Noah Quarshie
c/o Bible Baptist Church

PO Box os187

Osu, Accra
Ghana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Hong Kong

Ps Chung
216 Wang Chau Vill. Ext.
Ping Shan, Yuen Long, N.T.
Hong Kong
fjb.hk.china@gmail.com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India

Lalit Tamang
c/o Pastoral Training Seminary
141 Bairo Alto
Assagao
Bardez
Goa 403507
India
lalittamang@gmail.com
FGB subscription: Rs100

Chapel Library of Italy

c/o Coram Deo
Via Menotti 6/8
46047 Porto Mantovano
Mantova
Italy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Kenya

Trinity Baptist Church
PO Box 57907
Nairobi 00200
Kenya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Korea

Sangga #102-207, SK-APT
Jeonnong 2 dong,
Dong Dea Moon Gu
Seoul 103-769
South Korea
reformedlibrary@gmail.com

Chapel Library of Malawi

Cornelius Chagoma
P.O. Box 30610
Chichiri, Blantyre 3
Malawi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Mexico

Publicaciones Faro de Gracia
COM-055
04831 DF
Mexico
director@farodegracia.org
FGB subscription Spanish edition
(2 issues per year): 50 pesos
(pastors no charge)

Chapel Library of Myanmar

Pastor Timothy Mang
c/o Biblical School of Theology
G.P.O Box 32
Yangon
Myanmar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Nepal

c/o Pastor Samuel Rai
Canaan Baptist Church
P.O. Box 255
Kaski - Gandaki
Pokhara
Nepal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New Zealand

Mike Marshall
6 Mayfair Place
Westown, New Plymouth
New Zealand
chapel.library@hotmail.com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Nigeria

Pastor Ani Ekpo
c/o Christ's Reformed Church
P.O. Box 7066 T/A
Port Harcourt, Rivers State
Nigeria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Papua New Guinea

c/o Christian Leaders Training College
C/ PO Box 382
Mt Hagen
WHP
Papua New Guinea
FGB subscription: pastors: no charge;
all others: K8

Chapel Library of the Philippines

Pastor Steve Hofmaier
c/o Moonwalk Community Bible
Church
142 Armstrong Street
Moonwalk, Paranaque 1700
Philippines
putingpinoyseh@yahoo.com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Romania

Dinu Moga
c/o Editura Faclia
Street Facliei no. 36D
Oradea, cod 410181
Bihor
Romania
14 Ron (gratuit pentru pastori)

Chapel Library of South Africa

Pastor Willem Bronkhorst
c/o Constantia Park Baptist Church
P.O. Box 33226
Glenstantia 0010
South Africa
FGB subscription: no charge; Also
serving Ethiopia, Zimbabwe, Liberia,
Namibia, Tanzania

Chapel Library of Spain

Mr. Demetrio Canovas
Editorial Peregrino
La Almazara, 19
13350 Moral De Calatrava
C. REAL
Spain
info@editorialperegrino.com
FGB subscription Spanish edition
(2 issues per year): 3,30

Chapel Library of Trinidad & Tobago

c/o The Reformed Evangelical Church
33 Auzonville Road
Tunapuna
Trinidad and Tobago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Uganda

c/o Action Ministries
PO Box 71249 Clock Tower

Kampala

Uganda

one year FGB subscription: pastors:

no charge; all others: 5500 ush

Chapel Library of United Kingdom

67 St Francis Road

Salisbury SP1 3QR

UK

freebroadcaster@yahoo.co.uk

FGB subscription: no charge

Chapel Library of Latin America

Pastor Wayne Andersen

Publicaciones Faro de Gracia

P.O. Box 1043

Graham, NC 27253

USA

director@farodegracia.org

FGB subscription Spanish edition

(2 issues per year): 7,00 USD

(pastors no charge)

Chapel Library of Zambia

Mr. Charles Bota

c/o Evergreen Christian Bookstore

P.O. Box 50946

Lusaka 15101

Zambia

one year FGB subscription: K10,000